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 호 4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7 호 (221)
1963년 4월 (상)

차 례

우리 혁명의 현 단계와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당 중앙 위원회는 최근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서 제기되는 과업들과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혁명 발전의 현 단계와 내외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적과의 장기적인 투쟁에 대처하여 우리의 혁명 동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더한층 튼튼히 준비시키며 계속 불패의 힘으로 장성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최근 경제 건설 및 국방력 강화 분야에서 당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이어 우리의 혁명 군중의 사상적 무장을 더한층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혁명의 기치를 정치적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회기적 조치로 된다.

이 조치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전국적 규모에서의 혁명의 완수를 더욱 준비 있게 맞이함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및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고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동방 초소인 우리의 혁명 진지를 더한층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I

혁명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혁명 동력의 사상적 무장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이 문제에 제 1 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혁명 군중의 사상적 무장을 떠나서는 정치적 군대의 편성, 혁명 력량의 준비에 대하여 말할 수 없고 혁명 력량의 준비가 없이는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혁명 군중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하나의 대오로 강철 같이 뭉치여 당이 제기하는 과업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며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궁무진한 힘과 영웅주의를 발휘할 수 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오직 사상적 무장이 튼튼할 때에만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의 환경에서나 생활이 날로 향상되는 순탄한 환경에서나 적대 사상과 기회주의의 영향이 가강되는 환경에서나 할 것 없이 끝까지 혁명적 지조를 지킬 수 있고 자기 나라에서와 세계에서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철저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실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사상, 로동 계급의 사상은 혁명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투쟁의 대상과 방도에 대하여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천주의와 무궁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생활은 오늘 자기 손에 자기의 운명을 틀어 쥐고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된 인민을 굴복시킬 힘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인민과 인민 군대는 적들에게는 없는 혁명적 사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여 있었기 때문에 조국 해방 전쟁에서 수'적으로나 기술 기재에 있어서 우세한 적들을 능히 타승할 수 있었다. 오늘 강대한 미 제국주의가 자그마한 큐바 인민을 정복하지 못 하는 것도 바로 같은 사정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혁명 력량이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있다면 그 어떤 군사적 과업이나 경제적 과업도 승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민주 기지 로선에 립각하여 북반부 인민들을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조선 혁명의 주력 부대로 꾸리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사상적 무장을 첫 자리에 놓고 혁명 발전의 단계마다 제기된 과업과 조성된 환경에 적응하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앞세우는 방침을 견지하여 왔다.

당은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무장시켰다.

우리 당은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형식주의, 교조주의 및 수정주의의 온갖 표현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적, 정치 도덕적 풍모에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나고 있다.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고 전체 인민이 당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있으며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충만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하고 있다.

우리 당은 혁명 군중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그들의 계급 의식, 계급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기본을 두고 있다.

혁명 군중은 무엇보다도 우선 확고한 계급적 립장, 적아를 구별하고 계급적 원쑤를 증오하는 의식으로 무장되여야 한다. 계급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이 없고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착취 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이는 혁명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진장한 힘과 영웅주의가 솟아 날 수 없다.

당은 중요한 혁명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혁명 군중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여 왔다.

특히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 당 중앙 위원회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 당원들과 대중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

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착취 제도,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는 심각한 혁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혁명 군중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가장 현명한 대책이였다.

치렬한 계급 투쟁을 동반한 이 혁명 과업 수행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발휘한 높은 정치적 열성은 당의 조치의 정당성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수된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급속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때에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면서 역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삼았다.

우리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서 우리 앞에 나서 있는 과업과 조성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더 한층 강화하고 혁명 동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 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혁명의 기지를 꾸리는 데 있어서 사활적 의의를 가지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 축성, 인민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훌륭히 실현되였다.

조국 통일과 민족적 독립의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였다.

이리하여 현 시기 우리 인민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며 남반부에서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 시대는 혁명과 투쟁의 시대이다. 국제 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투쟁에서 제국주의는 압도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미제를 괴수로 하는 반동 세력은 도처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민족 해방 투쟁과 공산주의 운동을 압살하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으며 더욱더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

적들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 복구에 대하여 망상하면서 발광적인 반공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으며 썩어 빠진 부르죠아 사상과 퇴폐적인 생활 양식을 류포시키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에 발맞추어 제국주의를 극력 미화 분식하고 있으며 인민들 속에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혁명 의식과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국제 반동의 괴수인 미제국주의와 장기간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가장 반동적이고 야만적인 미제 식민지 통치 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적들은 공화국 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자본가, 지주 제도를 회복하려는 침략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원쑤들은 우리 내부에 숨어 있는 적대 분자들과 결탁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훼손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책동하고 있다.

오늘 남북 조선에 조성된 혁명 정세는 우리 혁명 수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북반부 인민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 북반부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미 오래 동안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하게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그 자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주의 건설이 잘 되고 생활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안일성과 해이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혁명이 간고하고 장기화함에 따라 권태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적대 계급이 청산되고 물질적 생활 조건이 전변된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낡은 의식이 저절로 개변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공산주의적 의식, 혁명적 사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될 수는 없다.

내부에 낡은 사상 잔재가 있고 외부로부터 부르죠아 사상의 부단한 영향이 있는 조건 하에서 근로자들의 의식 개변을 자연 생장성에 맡길 수는 절대로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그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그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비단 낡은 사상 잔재가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생되고 조장되여 사회주의 건설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오늘 북반부에서는 계급적 압박과 착취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고 근심 걱정 없는 처지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일부 견실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늘의 행복에 도취하여 어제'날의 쓰라린 생활 처지를 잊어 버릴 수 있으며 따라서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희박해질 수 있다.

더우기 지금 우리 제도 하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 학대와 멸시를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 이들은 오늘 벌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와 조국 보위의 초소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혁명 수행의 주력군으로 되여야 한다.

이 모든 사정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계급 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의 사상적 무장을 더욱 튼튼히 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반제국주의 교양을 더한층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본성에 대하여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력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반제국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침략자들과 자본가, 지주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 그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 정신으로 혁명 군중을 무장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할 때에만 혁명 력량을 계속 불패의 힘으로 장성시킬 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당면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한층 강력하게 추진시킬 수 있으며 다가오는 혁명적 대사변과 남북 조선에서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혁명

군중을 더 잘 준비시킬 수 있으며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II

변화된 오늘의 혁명 정세와 계급 교양의 새로운 환경은 혁명 군중의 계급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중심적 문제들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혁명 군중에게 우리 혁명의 원쑤들의 계급적 본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 동력과 대상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주어야 하며 특히 우리 혁명의 원쑤들의 본성을 똑똑히 파악시켜야 한다.

우선 반제국주의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그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명백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 제국주의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고 침략과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력사적으로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혁명의 최대의 장애물이며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이다.

미 제국주의의 죄악상을 구체적인 자료로써 계통적으로 폭로하며 특히 미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우리 인민에 대한 야수적 만행을 폭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 제국주의를 철저히 증오하며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견지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결한 혁명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와 함께 우리 나라 남반부에 또다시 기여 들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책동을 폭로하며 그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에 조선 인민에게 막대한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우리의 철천지 원쑤이며 오늘도 계속 미제와 함께 우리 인민의 주되는 적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 군중은 제국주의의 본성과 야수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취약성, 그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혁명 군중에게 자본주의 세계의 부패상과 암흑상, 제국주의 모순과 그의 취약성을 잘 알려 주며 자본주의,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똑똑히 인식시킬 때에만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동요 없이 투쟁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혁명 군중에게 지주, 자본가의 계급적 본성을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계급적 원쑤를 극도로 증오하며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계급 교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지주, 자본가는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계급적 원쑤이며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근로 인민을 억압 착취하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부식시키는 우리 혁명의 투쟁 대상이다.

과거 일제 시기와 오늘 남조선에서의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의 악랄성, 로동자, 농민의 비참한 생활 처지에 대하여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널리 해설 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활이 향상될수록 과거의 처지를 잊지 않게 하며 특히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체험하여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계급적 원쑤의 본성을 똑똑히 알려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화국 북반부에서 계급으로서 청산은 되였으나 의연히 착취자적 본성을 버리지 않고 우리 당과 인민을 계속 적대시하고 있는 극소수 반혁명 분자들의 음흉한 준동에 대하여 폭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항상 계급적 원쑤를 증오하고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을 견지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혁명 군중에 대한 계급 교양에서 기본 문제의 하나는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된 현 시대는 대립되여 있는 두 제도—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와 멸망하여 가는 자본주의 제도 간의 투쟁의 시대이다.

특히 국토가 분렬되고 두 제도가 서로 맞서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계급 투쟁은 무엇보다도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와 남반부의 자본주의 제도 간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 군중이 우리 제도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전국적으로 그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는 것은 계급적 교양 사업의 중심 문제의 하나로 된다.

우리의 사회 제도는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이 훌륭한 물질, 문화 생활을 근로자들에게 보장한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제도 하에서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며 누구나 다 일하며 배울 수 있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재능과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하며 우리 당의 정책이 이것을 어떻게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

근로자들을 이와 같이 교양하지 않을 때, 우리 제도가 자본주의보다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주기 때문에 좋다는 식으로만 교양할 때에는 그들에게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정확히 파악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오직 생활을 즐길 것만을 생각하게끔 하는 속물적인 교양으로 되고 말 것이다.

남북반부의 상반되는 두 현상의 대비 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동시에 이 제도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과 우리 당과 인민의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쟁취된 가장 고귀한 혁명적 전취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제도 하에서 사는 궁

지와 행복감,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각오를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한 그들의 투쟁은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이라는 영예와 책임감을 간직하도록 하며 항상 남조선 인민을 잊지 말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화는 조국의 통일과 전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 군중 속에서 우리 혁명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자각, 피압박 근로 인민의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필연적 승리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혁명적 락관주의를 배양하는 것은 현 시기 첨예한 계급 투쟁의 환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 군중이 사회 발전 법칙을 인식하며 우리 혁명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확신할 때만이 자기 사업에서 혁명적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혁명이 아무리 간고할 때에도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 발전 법칙과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 혁명의 방도를 명백히 인식시키며 우리 혁명의 내외 정세를 일상적으로 알려 줌으로써 그들이 혁명의 승리적 전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빛나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와 전망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훌륭한 미래에 대한 높은 긍지와 포부를 가지게 하며 자각적 열성과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혁명적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것은 계급 교양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은 과학적 세계관의 확립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더욱 철저하고 확고한 것으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계급과 계급 투쟁, 사회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파악시키며 그들을 우리 당이 수행한 계급 투쟁의 력사적 경험으로 무장시킴으로써 혁명 투쟁에 더욱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어떠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당적, 계급적 립장을 고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 교양 사업에서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계급 로선 또는 계급 정책과 군중 로선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인식시킴으로써 계급 투쟁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계급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적아를 구별할 줄 알며 적을 고립시키고 격파하기 위해 투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군중을 쟁취하며 군중의 리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각계 각층 모든 군중들을 다 포섭하고 교양하여 당 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이 곧 혁명의 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궁지에 몰아 넣게 하는 더욱 심각한 계급 투쟁이라는 것을 똑똑히 파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 내부에 숨어 있는 극소수의 반혁명 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각계 각층 군중을 모두다 교양 개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묶어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과 모든 계층을 인내성 있게 교양 개조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게 하는 사업은 정확히 결합되여야 한다.

이리하여 계급적 교양 사업이 계급 투쟁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계급적 원쑤를 더욱 고립시키고 우리의 계급적 핵심 진지를 공고히 하며 각 계층 인민들의 정치 사상적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여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꾸리는 데 돌려지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사업의 모든 수단들과 방법들을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급 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 소책자, 론설, 기사들이 계통적으로 출판 보도되여야 하며, 계급적 원쑤를 폭로하고 그를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투쟁을 생동하게 형상화한 시, 소설, 가요, 연극, 영화 등이 더 많이 창작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구두 선전, 사진 전람, 현지 답사 및 현지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급 교양 사업을 조직 전개하며 특히 항일 투사들을 비롯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제국주의와 착취 계급의 본성을 체험한 근로자들을 군중 앞에 출연시키는 사업을 적극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청 및 녀맹 단체들의 교양자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교원들의 정치 사상 수준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

우리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더욱 제고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 력량의 사상적 무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킬 것이며 다가오는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 있게 주동적으로 맞이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

김 영결, 김 덕진

로동 계급의 당은 혁명 투쟁을 령도하는 일체 활동에서 반드시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것은 혁명 수행에서 중요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혁명 투쟁에서의 성과 여부는 로동 계급의 당이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여하히 결합시켜 관철하는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지난 기간 조선 인민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 북반부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쟁취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우리 당이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가장 정확히 관철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다.

우리 당의 일체 활동에 철저히 구현되고 있는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의 결합의 원칙, 특히는 계급 투쟁에서 이 량자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방침을 정확히 리해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계급 투쟁에 있어서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

계급 로선이란 모든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리익을 고수하며 로동 계급의 정치, 경제, 사상적 립장이 강화되도록 하는 원칙이며 군중 로선은 로동 계급과 동맹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계급, 계층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이다.

혁명 투쟁에서 계급 로선을 관철시켜야 할 필요성은 로동 계급의 력사적 역할과 관련되여 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창설할 수 있는 계급은 오직 로동 계급 뿐이다. 로동 계급의 이 력사적 역할은 맑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천명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맑스의 학설에서 주요한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창건자인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 역할을 천명한 것이다.》(레닌 전집, 제 18 권, 742 페지)

로동 계급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 되는 것은 그가 혁명에서 잃을 것은 오직 철쇄 밖에 없는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며 대규모 기계 생산과 련결되여 있는 가장 조직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이기 때문이다. 오직 이러한 계급만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전체 피압박 대중을 해방하고 전 인류를 공산주의에로 인도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이 이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장기간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계급적 립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를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은 부르죠아지의 수중에서 주권을 전취한 다음 그것을 리용하여 타도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동시에 모든 피착취 근로 대중을 자기 주위에 단결시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최대한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야 할 필요성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특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특성은 이 혁명이 한 착취 형태를 다른 착취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를 영원히 없애 버리는 데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로동 계급의 리익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을 비롯한 모든 피착취 대중, 사회의 가장 광범한 근로자 대중의 리익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리익은 전체 근로자들의 리익과 일치된다.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가…압도적 다수의 근로자들의 실제적 리해 관계를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까닭이다.》(레닌 전집, 제 30 권, 334 페지)

그렇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선행한 모든 혁명과는 달리 로동 계급과 리해 관계를 같이 하는 가장 광범한 근로 대중을 혁명 투쟁에 적극적으로 인입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은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써는, 광범한 근로 대중을 력사적 창조에 끌어 들임이 없이는 결코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은 우리 당이 혼자서 할 수는 없다.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요, 인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선집, 제 6 권, 276 페지)고 거듭 강조하였다.

오직 로동 계급의 당이 일체 활동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만 광범한 근로 대중을 자기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킬 수 있으며 혁명 위업을 실현할 수 있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계급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동시에 군중 로선을 관철시켜야 한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으며 따라서 어느 일방을 떼여 놓고 다른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은 모든 근로 대중을 자기 주위에 단결시키고 그들에 철저히 의거하여 투쟁함으로써만 자기의 계급적 립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중의 단결은 로동 계급의 령도가 보장되고 그의 계급적 원칙이 고수될 때 참으로 공고한 것으로 된다.

계급 로선을 관철한다는 것은 동시에 군중 로선을 관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중 로선을 관철한다는 것은 동시에 계

급 로선을 관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중 로선을 떠난 계급 로선이란 무의미한 것이며 계급 로선에 립각하지 않는 군중 로선이란 있을 수 없다.

만일 계급 투쟁에서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키지 못한다면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계급적 원칙을 고수하지 못 하는 우경적 오유를 범할 수 있으며 군중과의 사업에서 그들의 리해 관계를 침범하고 그들을 로동 계급으로부터 리탈시키는 좌경적 오유도 범할 수 있다.

오직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 관철할 때에만 군중을 단결시키는 사업도, 반혁명과의 투쟁도 다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가장 철저히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당에 의한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의 정확한 결합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력사는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에 배치되는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용허함이 없이 제때에 극복하면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시기에 이를 정확히 결합시켜 관철하여 온 로정이였다.

우리는 조국이 분렬된 조건에서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북반부에서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면서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민족적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을 비상히 간고하고 첨예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장기성을 띠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그것은 로동 계급이 일체 반제 력량, 광범한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자기 주위에 단결시킬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철저히 결합시켜 관철시킨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 후 일관하게 이 량자를 정확히 결합시킴으로써 계급 투쟁을 승리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언제나 독재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할 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대가 착취자들을 타도, 진압하고 피착취자들을 노예적 상태로부터 해방하고 수탈된 자본가들을 희생으로 하여 그들의 생활 조건을 지체 없이 향상시킨 다음에야만, 오직 이렇게 한 다음에야만… 가장 광범한 근로자들과 피착취자 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주위에, 그의 영향과 지도 하에 계몽, 교양, 조직할 수가 있으며… 자유로운

일'군들의 자유로운 동맹에로 그들을 전화시킬 수가 있다.》(레닌 전집, 제 31 권, 217 페지)

우리 당은 계급 투쟁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일관하게 혁명 군중의 정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 자신이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을 지지하고 따라 오게 하며 그들을 교양하고 단결시키고 발동하여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대중적으로 투쟁하도록 지도하여 왔다.

해방 후 주권 문제를 해결한 데 뒤'이어 우리 당은 토지 개혁을 실시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고농과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는 계급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지주를 청산하는 계급 투쟁을 농민들 자신의 대중적 투쟁으로 전개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러나 토지 개혁을 실시하는 행정에서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나 어떤 지방에서는 부농과 지어는 중농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는 좌경적 편향과 독재 대상인 지주들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는 우경적 편향이 있었다.

이러한 편향들은 다 같이 로동 계급의 농촌 진지를 약화시키는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고 고농, 빈농들의 리익을 위주로 하며 그들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광범한 근로 농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책을 관철함으로써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농촌의 계급 진지를 공고히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지체 없이 중요 산업 기관들을 국유화함으로써 일제와 예속 자본가들의 경제적 지반을 소탕하였으며 로동 계급의 경제적 립장을 공고히 하였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킨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되였다.

사회주의 혁명에서 기본 문제로 제기된 농업 협동화 운동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중농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부농을 제한하며 개조하는 계급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협동화를 반대하는 극소수 부농에 대하여서는 응당한 제재를 가하였다.

협동화 운동 초기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시기 상조》라고 운운하거나 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빈농에 철저히 의거하지 않는 우경적 편향과 농민들의 준비 정도와 리해 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덮어 놓고 높은 형태와 큰 규모만을 추구하는 좌경적 편향을 부분적으로 발로시켰다.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하면서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조합을 조직하고 그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였으며 광범한 근로 농민들의 리해 관계에 맞게 조합의 형태와 규모를 설정하고 그들의 준비 정도에 상응하게 협동화 운동의 속도를 규정하였으며 농민들 자신이 대중적 운동으로 이를 강력히 추진시키도록 지도하였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이 정확히 결합된 당의 이러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모든 사

람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전변되였으며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이 새로운 토대 우에서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된 조건에서 우리 당은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계급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적극적이고 자각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 개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였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해방 후 조국의 남북으로의 분렬, 특히는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사회 정치적 구성이 적지 않게 복잡하여졌다.

이 복잡한 계층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을 강화하며 우리의 혁명 력량을 결속시키기 위한 투쟁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극히 중요한 문제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복잡한 사정들이 많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복잡한 사정과 전혀 련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져 가지고 대중을 잃어 버리면 공산주의에로 나갈 사람은 몇 사람 남지 않게 될 것이다…우리는 아무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몇 사람만 가지고 어느 섬으로 가서 그들끼리만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대중과 함께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이 땅에 새 생활을 건설해야 한다.》(선집, 제 6 권, 520, 523 페지)

그러나 한 때 당 내에 잠입하였던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각계 각층 군중을 포섭하고 단결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외곡하면서 《유지 로선》을 내걸고 기본 군중의 적극성을 마비시키려고 책동하였으며 또 당의 진의도를 정확히 리해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은 무원칙하게 군중을 믿지 않고 경원하며 호상 불신임을 조성하는 편향을 발로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고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각계 각층 군중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쟁취하여 당 주위에 결속할 데 대한 시종일관한 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당 중앙 위원회 1960년 4월 1일 상무 위원회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1961년 3월 27일 교시이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3월 27일 교시에서 환경이 복잡한 사람들과 일시적 오유를 범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다 같이 행복을 누리며 더욱 화목하고 단결하기 위한 새로운 일련의 조치를 발기하였다.

이 조치는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가장 정확하게 결합시킨 것이며 계급 투쟁을 가일층 심화 발전시키는 창조적 대책으로 된다.

복잡한 계층들 가운데서 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사람들의 성분을 재평가하여 주며 그들의 열성을 북돋아 주는 조치는 결코 계급 투쟁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중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고립시킬 대상과 개조의 대상을 구분하고 처리하는 대중적 투쟁이며 기본 군중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잡한 계층들의 정치적 열성을 제고함으로써 극소수 적대 분자들을 가장 철저히 고립시키고 제압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적을 와해시키고 굴복시키는 진공적인 대책으로 되며 나아가서는 남반부의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 력량을 우리 당 주위에 단결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이 취한 이러한 조치는 복잡한 계층들로 하여금 우리 당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당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 높은 열성을 발휘케 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비할 바 없이 강화케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의 경험은 오직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 관철할 때에라야만 《누가 누구를》 하는 과도기의 기본 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로동 계급의 주위에 단결할 수 있는 모든 군중을 가장 훌륭히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의 더욱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우리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서 제기되는 과업들과 첨예한 현 정세는 계급 투쟁에서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 관철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당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뭉쳐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달성하는 성과가 크고 혁명 력량의 단결이 강화되면 될수록 적들의 발악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도 가일층 악랄하여지고 있다.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고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서는 계속 긴장된 투쟁을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남조선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우리 당 앞에는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혁명 력량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하며 남반부의 전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단합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문제는 극소수 적대 분자를 철저히 진압함과 동시에 특히 각계 각층 군중을 더 잘 교양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집결시킴으로써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해방 후 북반부에서 진행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변혁들로 말미암아 각계 각층 군중들의 처지와 사상 령역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 났으며 그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 있다.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각계 각층 군중을 소화할 수 있는 공산주의 핵심 력량이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다.

지금 문제는 로동 계급의 핵심 진지를 더욱 공고화하는 한편 각계 각층 군중에 대한 계급적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믿고 아량 있게 포섭하고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데 있다.

이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모든 일'군들이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자체 내에 통일시키고 있는 우리 당의 계급 투쟁 방침의 진수를 철저히 체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잡한 계급 투쟁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적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이한 정황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평가 분석 처리하며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발동하여 계급 투쟁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건으로 된다.

군중의 사회 정치적 구성이 복잡한 조건에서 적아를 똑똑히 구분하는 것은 각계 각층 군중을 단결시킴에 있어서 선결 조건으로 된다.

오늘 북반부에서 적아를 식별하는 기준은 그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으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중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사상 동향과 사업 정형을 기본으로 하고 본인을 위주로 하며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라야만 계급 투쟁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범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킨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철저하게 군중에 의거하는 혁명적 사업 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오직 광범한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할 때에라야만 각계 각층 군중을 정확히 료해하고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방도를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을 단결시키고 발동하여 대중적 운동으로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더욱 심입시킬 수 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계급 투쟁을 수공업적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대중의 각성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행정적 방법으로 진행할 때에는 이 투쟁을 철저히 진행할 수 없으며 이러저러한 오유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당의 계급 투쟁 방침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한결 같이 계급 투쟁에 인입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끝으로 각계 각층 군중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상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개조하는 것은 계급 투쟁을 심화시키고 그의 성과를 확대하는 결정적 대책으로 된다.

사상 투쟁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의 주되는 형태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머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낡은 사상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개조하는 것, 특히는 각계 각층 군중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것은 이들을 리용하여 우리의 혁명 위업을 침해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의 흉책을 분쇄하고 우리의 혁명 진지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

그런데 이 투쟁은 단 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오직 장기적이고도 꾸준한 군중적 투쟁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 군중을 비롯한 각계 각층 군중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특히는 계급 교양 사업을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계급 교양 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계급적 의식이 비상히 높아질 때 그들은 적아를 똑똑히 구분하고 계급적 원쑤들을 증오하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 군중적 사상 개조 운동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당원들과 천리마 기수들이 각계 각층 군중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짜고 들어 이신작칙하면서 반혁명 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교양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단결시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상의 모든 과업들이 성과 있게 수행될 때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튼튼히 뭉치게 될 것이며 전 사회에 화목과 신뢰의 분위기가 넘쳐 흐르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통일 독립 위업은 가일층 촉진되게 될 것이다.

현 시기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정 기 련

우리의 청소년들은 바로 래일의 조선 혁명의 담당자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이다.

청소년 학생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확고한 계급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된 믿음직한 혁명 투사로 교양 육성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이다.

때문에 우리 당은 해방 후 첫날부터 시종 일관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매 시기 명확한 방향과 그 수행 방도를 제시하여 주었다.

당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자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 왔다.

특히 1961년 4월 25일 전국 교육 일' 군 열성자 대회에서와 1962년 5월 3일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 교시는 후대 교양 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우리의 청소년 학생들은 계급적 각성이 높아졌으며 공산주의 도덕 풍모가 전면적으로 발양되게 되였다.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는 인민을 사랑하고 동무를 사랑하는 집단주의 정신이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공동 재산을 애호하고 로동을 사랑하는 기풍이 확립되여 가고 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얼음 구뎅이 속에 뛰여 들어 세 아동을 구원한 공화국 영웅 백 중기 학생, 자기 희생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철교와 렬차를 위험에서 구원한 방 금순, 전 신자 학생들, 인간 생명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사경에서 구원한 평양 사범 대학 학생들, 그리고 가지가지의 모범적 사실들과 미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은 바로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풍만한 토양 우에 활짝 피여 난 붉은 꽃송이들이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귀중한 재부이며, 우리 당이 공산주의 교양에서 거둔 빛나는 열매이다.

이 아름다운 소행의 근저에는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밀접히 결합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이 놓여 있으며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항일 빨찌산들처럼 살려는 우리 청소년들의 꾸준한 노력이 안받침되여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 정세는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특히 계급 교양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시기 우리 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 과업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혁명은 계속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 있다.

우리 앞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 조국 통일의 튼튼한 민주 기지를 축성하여야 하며 공화국 남반부에서 하루속히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간고한 혁명 과업이 나서고 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우리 혁명의 담당자로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계자인 청소년들을 계급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은 앞으로 닥쳐 올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오늘 국제적으로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이것을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멸망에 직면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반공》 사상 공세를 취하면서 썩어 빠진 부르죠아 사상과 온갖 퇴폐한 생활 양식을 류포하려고 발광하고 있으며 횡포한 도발 행동을 감행하여 피압박 인민들을 예속시켜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탈을 쓰고 음으로 양으로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특히 청소년들 속에서 안일, 부화, 타락을 조성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지주, 자본가, 온갖 인간 쓰레기들을 긁어 모아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시켜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말살하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긴장성이 해이되여 높은 계급적 안목으로 원쑤들의 일거 일동을 경각성 있게 감시하지 못 하고 그들의 음흉한 책동을 제때에 적발 폭로할 사상적 준비가 되여 있지 못 하다면 원쑤들은 우리의 해이된 틈을 타서 사회주의 전취물을 해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계급적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원쑤를 똑똑히 식별할 수 있으며 혁명적 투지도 생기며 원쑤를 미워하고 그와의 싸움에서 용감성을 발휘할 수 있다.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

하는 문제는 오늘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착취 관계가 오래 전에 청산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처지로 보아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방 후 근 20 년간 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 난 우리의 청소년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직접 체험하지 못 하였으며 혁명에서 간고한 시련을 겪어 보지 못 하였다.

이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포악성과 약탈성, 근로자들에 대한 지주, 자본가 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 등에 대하여 똑똑히 모르고 있으며 다만 말을 듣고 모호하게 알고 있을 뿐이다.

전국 교육 일'군 열성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착취가 근절된 지 오래인 만큼 과거에 지주나 자본가들이 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던 것을 배워 주지 않는다면 지금 나이 젊은 사람들은 지주와 자본가들의 악랄한 본성을 모를 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의 20 세 전후의 청소년들은 그 다수가 해방 후에 출생한 것만큼 지주, 자본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리해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우리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기 부락에 옛지주들이 도사리고 앉아서 음흉하게 책동하고 있으나 그를 계급적으로 옳게 식별하지 못 하고 있으며 그가 지주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증오할 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 학생들을 확고한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급적 원쑤를 식별하지 못 하고 계급적 리익을 옹호할 수 없을 것이며 원쑤와의 싸움에서 무력하여지고 간고한 투쟁에서 동요할 수 있다.

더우기 날이 갈수록 유족한 생활 속에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계급 교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과거도 모르며 투쟁도 모르는 무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처지와 착취 계급의 본성을 잊어 버리고 생활에서 안일하고 사업에서 권태증이 생기며 부르죠아 사상이 쉽게 침습될 수 있다.

혁명의 간고성을 체험하지 못 하고 행복한 생활 속에서만 살아 온 우리의 적지 않은 청소년들 속에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이 우리 선렬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며 우리 당의 령도 하에 날로 륭성하는 사회주의 제도가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오늘의 행복이 응당 차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래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담당할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 *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계급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그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우리 당과 인민이 반제 투쟁에서 얻은 경험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계급 교양에서 선결적 문제로 된다.

반제 사상 교양에서 우선 예봉을 돌려야 할 것은 미제의 죄악상과 야수적 만행을 폭로하고 그를 철저히 증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제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고 침략과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우리 혁명의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이다.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계통적으로 폭로하며 특히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감행한 미제의 죄악상을 구체적인 산 자료로써 교양함으로써만 청소년들이 우리 인민의 첫째 가는 원쑤가 바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며 따라서 미제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 혁명의 첫째 가는 임무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불붙는 적개심을 가질 수 있다.

동시에 미제의 취약성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제 와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북돋아 준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우리 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말았으며 세계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앞으로 반드시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로 교양한다면 청소년들이 그의 취약성을 옳게 인식하고 투지를 더욱 가다듬을 것이다.

반제 사상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증오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 36 년간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조선 인민에게 막대한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불구 대천의 원쑤이며 오늘 또다시 박정희 군사 파쑈 도당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 책동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흉악한 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일제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청소년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 것은 항일 빨찌산들의 회상기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다. 회상기 학습을 통하여 일제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더욱 똑똑히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사들의 훌륭한 모범으로 그들을 교양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세계의 부패상과 암흑상, 제국주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은 반제 사상 교양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본주의가 부패하고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결코 부르죠아 사상에 물들지 않을 것이며 안일과 부화, 퇴폐와 타락

등 썩어 빠진 사상 독소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나서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계급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지주, 자본가들의 계급적 본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계급적 원쑤를 증오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지주, 자본가들은 전체 근로 대중의 원쑤이며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의 앞잡이로서 대중을 착취하며 침략적 세력을 부식시키는 발판으로 되는 인민의 원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 원쑤를 청산함이 없이는 근로 대중이 해방될 수 없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근로자들에 대한 지주, 자본가들의 압박과 착취상을 폭로 규탄하는 것이다.

아직도 전복된 착취 계급들은 옛시절을 잊지 않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옛제도를 회복해 보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지주, 자본가들의 죄악적 본성을 똑똑히 리해시키는 문제는 다만 몇 마디의 옛'이야기나 몇 권의 책을 통한 설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지주, 자본가들의 본성을 폭로함에 있어서 과거 로동자, 농민의 비참한 처지를 생동하게 결부시켜 교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과거 지주의 머슴'군으로 잔뼈가 휘도록 일을 하여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던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당사자 자신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직접 들려 준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계급적 원쑤들의 착취적 본성과 그 죄악상을 더욱 잘 리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계급 교양에서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켜 우리의 제도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자들은 자기 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의 우월성을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알아야만 이 제도를 사랑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그것을 옹호하며 이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이 발현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압박이 없으며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다 같이 평등하며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다만 인민들에게 훌륭한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여 준다는 데 있다는 식으로만 교양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함에 있어서는 또한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 이렇게 판이한 두 현상을 대비하여 교양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여기에서 사는 행복감을 자각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불행한 남반부 인민을 하루 속히 구원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행정에서 우리의 제도는 우리 당과 인민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고귀한 대'가로 쟁취한 위대한 전취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계급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혁명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자각,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필연적 승리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혁명적 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항상 높은 리상을 꿈꾸며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그리고 그의 전망에 대한 교양은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된 국제 국내 정세, 7 개년 계획의 전망,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적 미래를 이야기해 준다면 그들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각과 영예를 안고 래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헌신성을 더욱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어떠한 난관이라도 뚫고 나가며 항상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서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여 당의 후비대로서의 영예를 더욱 견결히 고수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 교양은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청소년들은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이 또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오늘 누구를 위하여 살며 무엇을 위하여 배우는가 하는 높은 자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항일 투사들—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모범으로 교양함으로써 청소년들을 혁명 선렬들처럼 원쑤에 대하여 무자비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믿음직한 혁명 투사로 키울 수 있다.

* *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계급 교양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비추어 이 사업은 전 사회적인 관심 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청소년 학생들을 과학적 공산주의 세계관과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육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 대렬의 질적 구성을 부단히 개선하며 그들을 혁명적 로동 계급의 의식과 계급적 관점으로 무장시키며 교육 교양에서 계급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다.

각급 민청 단체들과 녀맹 단체들의 교양자적 역할을 더욱 높이며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정서 교양, 사회적 교양과 가정 교양을 옳게 결합시키도록 할 것이다.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가정 교육을 밀접히 결합하며 당의 공산주의 교양 방침을 받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계급 교양을 심도 있게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계급적 각오가 높은 혁명 투사로, 사회주의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직한 붉은 전사로 준비시킬 것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과 로농 동맹의 가일층의 발전

김 택 현

로동 계급이 주권을 장악함에 있어서나 그것을 유지 공고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로농 동맹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승리의 불가결한 조건으로 된다. 로농 동맹—이것은 우리 나라 혁명 승리의 기본 력량이며 전체 인민의 단결의 기초이다.

당은 해방 후 로농 동맹의 거대한 력량에 의거하면서 혁명을 부단히 추진시켜 왔으며 동시에 매개 혁명 발전 단계에 상응하게 로농 동맹의 새로운 사회적 내용과 과업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와 방법을 창조하여 왔다.

특히 농업 협동화가 완성된 후 협동 경리의 규모와 사업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농촌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촉진되고 있는 새 환경에 적응하게 당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로농 동맹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관리 형태를 내놓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업에 대한 국가 지도 체계를 부단히 완성하는 문제는 로농 동맹 강화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적대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하게 확립된 조건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기 이전 시기까지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는 주요하게 농민을 착취와 빈궁의 근원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낡은 생산 관계가 청산된 이후 로농 동맹은 새로 창설된 생산 관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도록 로동 계급이 농민을 정치적으로 령도하고 물질적으로 원조하며 기술적으로 옳게 지도 방조함으로써 강화된다.

로동 계급의 이러한 지도와 방조는 국가 기구, 국가 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된다. 국가 기구, 국가 기관, 기업소에 의해서만 공업과 농업과의 련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원조, 로동 계급의 지도가 옳게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김 일성)이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주요한 지역적 단위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농촌 경리 발전을 담당한 국가 기관, 기업소의 역할을 군적인 범위에서 더욱 강화하고 국가 지도 체계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로농 동맹 강화 발전에서 매우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1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로농 동맹은 두 개 측면에서 부단히 발전 강화되였다. 즉 첫째로 그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북반부에서 혁명 과업을 추진시키는 동일한 투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였고 둘째로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처지, 의식 수준과 로동 조건 등의 차이를 점차 축소시키며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강화 발전되였다.

민주 개혁 시기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은 공통된 반제 반봉건 투쟁 행정에서 단합되였다. 로동 계급은 농민과 동맹 하에서만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을 청산하고 농촌에서의 계급적 지반을 견고히 할 수 있었으며 농민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만 토지에 대한 세기적 숙망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에는 두 계급이 서로 상반되는 경제적 기초, 즉 하나는 전 인민적 소유, 다른 하나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었고 로농 동맹은 사회주의 대규모 공업과 개인농 경리 간의 모순을 내포하는 경제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었다. 로농 동맹을 더욱더 견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유자로서의 농민 자체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로동 계급과 같은 사회주의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요구되였다.

이것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 시기의 로농 동맹의 주요 내용으로 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은 청산되고 우리의 농촌은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반석 같이 꾸려졌으며, 농민은 로동 계급과의 동맹 하에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고 부강한 사회주의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북반부에서의 로농 동맹의 새로운 강화 발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그것을 더욱 공고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협동화가 완성된 후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은 진정한 우의적 관계로 굳어졌고 공산주의 사회의 《땅과 공장의 로동자로》 통일 융합될 조건을 마련하는 단계로 올라 서게 되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이 로농 동맹을 가일층 발전시키게 되는 것은 새 체계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더 잘, 더 많이 할 수 있는 체계라는 데 기인된다.

당은 최근 년간 농촌 기술 혁명을 위하여 공업의 지원과 국가적 투자를 부단히 강화하였고 특히 군들에 있는 국가 농업 기업소, 기술 수단과 그 력량을 급속히 강화하였다.

그런데 종전의 농업 지도 체계에서 군 인민 위원회는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기술 수단과 력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군 내의 농기계 작업소, 농기계 수리 공장, 건재 상점 등은 각개 서로 다른 지도 체계에 속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들 호상간에도 농민들을 방조함에 있어서 통일적인 련계가 없었다. 때문에 군 인민 위원회는 협동 농장에서의 기술 혁명을 적극 추진시킬 수 있는 기구로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원조를 결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바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이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군 경영 위원회가 기술 수단들을 장악하고 농업의 자연 기후적 조건에 적응하게 가장 기동성 있고 령활하게 집중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농민들을 위한 국가 기관, 기업소의 봉사적 역할을 급속히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중앙이나 도에서 파견하는 기술 집단과 기술 설비, 공장, 기업소의 로력 등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적 혜택을 더욱 효과 있게 줄 수 있게 하는 거점이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는 거점인 군에 자리잡고 있는 경영 위원회는 자기 군 내의 농장 농민들의 애로와 수요를 제때에 장악할 수 있으며 농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국가적 방조를 적시에 조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체계는 로동 계급이 공업품을 농촌에 공급하고 농민이 식량과 원료를 도시에 공급하는 형태의 로동 계급과 농민의 경제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게 한다. 그것은 농민들의 농업 생산에 필요한 공업품이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산하 자재 공급소를 통하여 직접 농민들에게 들어 가며 군 인민 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전문화됨으로써 상품 류통 공급과 수매 사업이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은 로동 계급이 국가 기관을 통하여 농민들의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함으로써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게 한다.

과거의 지도 체계 하에서는 군 인민 위원회의 지도는 협동 농장에 대하여 지시와 독촉만을 주로 하는 행정적 지도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없었다.

그 때에는 군 인민 위원회 일'군들이 농업 생산과 관련된 군 내의 전반적 사정과 기술을 잘 알기 힘들었고 밑에 내려 간다 하여도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농업 생산을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없었으며 농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은 국가가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계획 작성에서 생산 조직, 기술 발전, 자재 보장, 로력 조직 등에 이르는 모든 농업 생산 활동을 직접 조직 지도할 수 있게 한다. 군 경영 위원회는 일'군들이 농민들 속에 들어 가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을 철저히 가르쳐 주며 농민들의 실정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이 잘 접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 주며 걸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군들이 농민들과의 사업을 혁명적 사업 방법, 청산리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게 제도화한 농업 지도 체계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과 함께 도 농촌 경리 위원회와 농업 위원회의 조직은 농산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일층 강화함에 있어서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 농촌 경리 위원회는 종전의 농업성이 혼자 하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작물 배치, 종자 선정, 시비 체계 수립, 락종 기일 보장, 로력 조절 등 농촌 경리에 대한 생산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농업 위원회는 종전과 달리 자기 산하에 망라된 많은 과학 연구 기관들을 직접 장악하고 농기계, 종자, 토지, 비료, 사료, 종축 개량, 자연 개조 대책 등에 대한 연구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진행하면서 그것을 농민들이 생산에 제때에 도입하도록 하며 농업 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자재, 농기계 보장 대책 등을 강구함으로써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킨다.

중앙과 도에서의 이러한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은 결국 우리 나라 전반에서 농민들이 국가와 로동 계급이 주는 지도의 힘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하며 로농 동맹을 일층 공고화하는 데 주요하게 기여한다.

군 경영 위원회의 창설이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농촌 기술 혁명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의 협동적인 공동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선 군 내의 로동 계급과 농민의 생산 활동이 경영 위원회의 통일적인 생산 지령 체계에 의하여 전개되는 데서 나타난다.

종전의 농업 지도 체계 하에서 군 인민 위원회는 군 내의 국가 기업소의 생산 계획을 정확히 장악하지 못 하였고 기업소 호상간의 계획은 서로 맞물리지 못 하였으며 협동 농장도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농산 계획을 작성하게 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현실과 잘 맞을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 때에는 서로 작업 계획이 잘 맞지 않아 일부 혼란을 가져 오는 경우가 있었고 더우기 그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이 협동 작업을 진행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 체계 하에서는 농장의 농산 계획 작성에 이와 관련된 모든 부문 일'군들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통일적인 생산 계획과 지령 체계에 의하여 협동 농민의 농산 작업과 농기계 작업소 로동자들의 작업은 서로 맞물리게 되고 농기계 작업소의 기경과 관개 관리소의 급수가 유기적으로 련결되는 등 로동 계급과 농민이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혼연 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새 체계 하에서는 협동 농장들과

국가 기관, 기업소들이 경영 위원회 산하에 망라되여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것 만큼 경영 위원회가 농산에 참가하는 군중들 속에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국영 기관, 기업소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이 서로 협조하고 방조하는 정신을 더욱더 많이 발양시키게 한다. 사실상 오늘 경영 위원회 산하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속에서는 협동 농장의 매개 지역의 각이한 조건과 해당 영농 작업의 각이한 시기를 정확히 타산하여 기계화 작업을 조직하며 농기계 수리 공장 로동자들 속에서는 농장의 자동차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부속품을 해결하고 그것을 제때에 수리해 주며 자재 공급소 일'군들과 로동자들 가운데서는 협동 농장들 간의 자재를 유무상통하도록 방조 주는 등 농민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기풍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한편 농민들 속에서는 뜨락또르의 련결 농기계를 비롯한 로동자들의 기계 설비들을 자체의 농기구 수리소에서 고쳐 주며 뜨락또르 조절수나 양수기 관리원의 역할을 솔선 담당하여 나서는 등 로동 계급을 따라 배우면서 그들의 사업을 협조하는 기풍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은 관개 공사를 비롯한 군 내의 모든 협동 농장들이 공통적 리해 관계를 가지는 협동 생산을 국영 기업소 로동 계급의 참가 하에 더욱 광범히 전개할 수 있게 한다.

새 체계가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는 계기점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의 기초를 점차 소멸하는 훌륭한 지도 체계라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는 투쟁 시기에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점차 접근시키는 문제는 로농 동맹 강화의 주요 측면이다.

바로 새 체계는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기계화 부대와 기술 집단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농장 농민들을 적극 도와 주게 함으로써 협동적 소유의 경제적 토대와 기술 발전 정도, 관리 운영 수준, 경리의 조직성과 계획성 등을 국가적 소유의 수준에로 효과있게 올려 세울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조직은 협동적 소유에 대한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 두 소유 형태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부단히 접근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됩니다.》(《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새 체계가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점차 접근시킨다 하여 농민들의 협동적 소유의 리해 관계를 침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이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서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게 하는 것은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협동 농장의 현존 제도를 그대로 보존하고 직접 그들의 재산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경영 위원회가 기업적 지도를 실현한다는 데 있다. 새 체계에서는 생산 수단과 재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두 소유 사이에 명백한 계선이 그어지고 있다.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의 생산 수단과 재산들을 처분하거나 협동 농장 로력을 류동시키지 않을 데 대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부단한 자극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새 체계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로동 조건에서도 그들 간의 차이를 성과 있게 제거하게 한다. 즉 새 체계는 농민들 속에서 기술 혁명을 급속히 추진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을 점차 공업화하며 농민들의 로동 조건을 로동 계급의 그것에 급속히 접근시키는 매우 합리적인 지도 체계이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기초를 점차 소멸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의 기술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논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기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지도 체계의 확립과 그의 정확한 운영은 농민들이 과학적인 선진 영농 기술을 급속히 소유할 수 있게 크게 작용한다. 또한 농기계 작업소, 관개 관리소를 비롯한 국가 기관, 기업소 로동자들이 농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배워 줌으로써 농민들 속에서 기술 후비대를 급속히 육성할 수 있다.

새 체계 하에서의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유기적 결합은 농민들의 소유 관념과 립장을 로동 계급의 관점에로 부단히 접근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모든 분야에서 더욱 급속히 높일 수 있게 한다.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육친적 지도와 방조, 그들의 정치 사상적 영향 하에 정치적 자각성과 로력적 열성을 더욱 급속히 제고하게 되며 로동과 공동 재산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 생활 기풍과 사상이 더욱 광범히 발양되게 된다.

특히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생활과 농업 생산에서 로동 계급의 강력한 조직성과 계획성, 규률성의 영향을 농민들 속에 직접 깊이 침투시킬 수 있는 훌륭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로동 계급이 규률적이고 조직적임에 반하여 농민은 분산적이고 자연 발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협동화 이후 농민들이 비록 개인농 경리 때와는 달리 집단화되고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경리에 망라되였지만 그들은 과거 낡은 경리 때의 잔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며 로동 계급에 비하여 아직도 산만하고 조직성이 미약하다.

그러나 군 경영 위원회의 집중적이며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는 협동 농장

농민들 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였고 로동 행정, 농장 재정 및 재산의 관리, 축적과 소비의 정확한 비례의 설정, 정확한 작업 정량의 사정 등에 대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극복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 이것은 그들을 로동 계급의 규률성으로 훈련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협동 경리를 한 단계 더 높은 경리 형태인 국가 경리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협동 농장들이 가지고 있던 산만성과 자연 발생성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그것을 더욱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강유력한 경리로 만들었습니다.…다시 말하면 과거보다 협동 농장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로 점차 끌어 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이 이와 함께 농민들 속에서 당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기구의 창설은 군 당 위원회가 군 내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 사업에 대한 키잡이의 기능을 보다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새 체계 하에서 군 당 위원회는 경영 위원회와 협동 농장 일'군들로 하여금 농민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며 모든 일을 사람들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도록 더욱 효과적인 방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한다. 군 당 위원회는 일'군들이 농민들 속에 직접 들어 가 실제적인 방조를 주며 걸린 문제를 풀어 주게 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도에 대한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더욱 높이게 한다. 특히 새 체계가 나온 후 군 당 위원회와 농촌 당 단체들은 농촌의 핵심 진지를 꾸리고 기술 일'군들과 로동 계급의 많은 력량을 농민들 속에 파견하여 로농 동맹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농민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농업 지도 체계의 개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이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농민의 정치적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점이라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농 동맹의 이러한 강화 발전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인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도상에서 이룩된 하나의 거대한 전진으로 된다.

미제의 세계 제패 계획과 아세아

허 남

오늘 미국 지배층은 두 진영 간의 《결사적인 투쟁》에서 공산주의를 《제거》하고 나아가서 미국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독립 국가들의 세계적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 자기들의 《력사적인 사명》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로골적인 침략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세계적 공동체》란 미국이 세계 인민을 지배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야심적인 세계 제패 계획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세계 제패 계획 실현에서 아세아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세아에서 공산주의를 《봉쇄》하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이와 같은 발광적인 침략 책동은 아세아에서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는 자기들의 침략 지반을 수습하고 유지하여 보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

오늘 아세아에서 반제 반식민주의 력량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그의 위력은 날로 발전 강화되고 있다.

아세아의 력사 발전의 전 과정은 미제의 침략 계획이 여지없이 파탄되고 있으며 아세아 대륙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종국적으로 청산되고야 말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미제의 세계 제패 계획에서 아세아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하며,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소위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하기로 하자.

1

최근 년간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변들은 미제 침략 계층들이 자기들의 세계 제패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악랄하게 달라붙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 지배층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대결》하기 위한 《전면 핵 전쟁》 준비를 발광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그와 병행하여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세계 도처에서 감행함으로써 자기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조성된 두 진영 간의 력량 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나아가서는 세계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을 《포위》하기 위한 군사 쁠럭 체계를 완성하며 열핵 무기에서의 《균형》을 보장하며, 《광대한 중간 지대》를 장악함으로써 공산주의를 《타

승》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침략적 책동은 《세계 무대에서의 미국의 전략 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자유로운 세계 공동체의 수립》, 《세계에 대한 미국의 령도》를 표방하면서 미국의 세계 제패 계획을 더욱 로골적으로 떠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까지 작성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케네디 정부의 이른바 《기본 전략》이 그의 선행자들의 세계 제패 계획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가 사회주의 진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전례 없이 앙양되였으며 전반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여 가며 자본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그 내부에서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환경에서 케네디 집단이 자기의 선행자들보다 더 모험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의 세계 지배의 야망을 달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 뿐이다.

케네디 집단의 《기본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주의 진영을 공격 《분쇄》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고 이 광대한 지역을 쟁취하며 자기의 《동맹국》들을 더욱 철저히 예속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지배를 달성하는 것이다.

케네디 집단의 세계 제패 계획에서 아세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 세계의 중심 방향이 태평양 쪽으로 더욱더 기울어지고 있으며》, 《아세아는 인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할 주요 전투장》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아세아는 세계 인구의 2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5억의 인구와 무진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견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아의 이와 같은 무진장한 인적 및 물적 자원들은 수백 년 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치부의 원천으로, 제국주의의 예비군으로 략탈 당하고 억압 당하여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도 해외 팽창을 개시한 초기부터 아세아를 기본 대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으며 아세아를 지배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해 보려고 망상하였다.

《비률빈은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비률빈의 바로 뒤에는 광대한 중국 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태평양은 우리 태평양이다. …태평양을 지배하는 강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다.》 이것은 미국 침략자들이 세계 재분할을 위한 최초의 전쟁인 미 서 전쟁(1898년)에서 력사상 류례 없는 류혈적 방법으로 비률빈을 강점하였을 때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전체 국회 의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웨친 말이다.

태평양을 지배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미제의 탐욕적인 야망은 실로 미국의 아세아에 대한 피묻은 전 침략사를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제 2 차 대전 후 남조선, 일본 등을 강점하고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통제를 수립한 미제는 아세아에서 세차게 일어나는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고 이 지역에 자기의 식민지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더욱더 광분하여 나섰다.

미제는 태평양 지역에 대병력을 배치하고 중국 인민의 혁명 투쟁을 비롯한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려고 악랄하게 행동하였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조선 전쟁을 도발하는 등 온갖 침략 행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어떠한 발악적 침략 행동도 아세아 인민의 전진 운동, 아세아의 력사 발전을 가로 막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미제의 세계 제패 계획에서 아세아가 특별히 주요시되고 있는 것은 현재 아세아에서 반제 투쟁의 불'길이 가장 세차게 타오르며 아세아가 미제의 《기본 전략》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아세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일찌기 레닌이 예언한 바와 같이 《…모든 동방 인민이 치부의 대상으로만 되지 않기 위하여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가하게 될 그러한 시기》(전집, 제 30 권, 181 폐지)가 도래하였다.

전후에 아세아에는 17 개의 나라가 새로 독립하여 저주로운 식민지적 압박과 예속을 벗어 던지고 새 생활 건설의 길에 들어 섰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화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의 출현과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력의 장성 강화는 아세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범위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와 진보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에 불리하게 변동시켰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 밑에 아세아 대륙에서는 또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료원의 불'길처럼 확대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이 지역에서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다.

과거에 제국주의의 예비군이였던 아세아는 오늘 강력한 반제 력량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 속에 굳게 단합된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존재와 그 위력의 강화는 태평양에서의 미제의 세계 제패 계획의 실현 도상에 가로 놓인 결정적인 장애로 되고 있는 것이다.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존재는 아세아 국가들에 대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적 압력을 견제하고 아세아 국가들의 독립의 공고화와 외래 간섭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믿음직한 성새로 되고 있다.

미국 지배층들은 또한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투쟁 경험과 그들이

새 생활 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가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미치는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락후한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부터 어떻게 발전된 선진 국가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모범을 보고 있다.

특히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었다.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그들 간의 단결의 강화를 불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연하지 않다.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 공격함에 있어서 단독으로는 힘이 부족한 조건에서 제국주의 진영을 결속하고 그를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중간 지대와 련결하여 이 모든 나라들을 미국이 지배하게 되면 사회주의 진영을 고립시키고 나아가서는 그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배층은 아세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광대한 지대를 누가 쟁취하는가 하는 문제》가 량대 진영간의 투쟁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자들은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과 날로 앙양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단결하여 반제 반식민주의 통일 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자기들의 세계 제패 계획은 완전히 파탄된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아세아는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기본 전략》에서 《결정적인 중요 전투장》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의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아세아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을 봉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아세아에 대한 침략 활동을 발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인들로 설명된다.

2

케네디 집단은 집권하면서 아세아에 매우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며 이 지역이 자기들에게 《암담》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모든 책임을 아이젠하워-덜레스 정부에 들씌우면서 자기 선행자의 정책을 《아세아인을 리해하지 못한》 《근시안적이며 협애한 정책》이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정책》을 운운하면서 과거의 모든 실책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세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봉쇄》하고 침공하며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며 중립주의 국가들을 자기의 예속 하에 넣음으로써 아세아에 대한 지배를 수립할 목적을 내세웠다.

그러면 케네디 집단이 말하고 있는 아세아에 대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덜레스의 《대량 보복 전쟁》 및 《전쟁 접경 정책》을 더욱 침략적인 것으로 완성하여 전면적인 핵 전쟁 준비와 함께 《국부 전쟁》 및 《특수 전쟁》 등 모든 형태의 전쟁을 감행하는 동시에 《중립의 존중》, 《경제 원조》 등 정치 경제적 회유, 기만 술책으로 그들을 엄폐하는 모험적이고 교활한 량면 정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케네디 집단이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그 어떤 새로운 것으로 광고한다 하여도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아이젠하워-덜레스의 《힘의 정책》과 다른 것이 없으며 다만 미 제국주의가 불리한 정세에 빠지게 된 환경에서 그들의 포악한 침략 정책을 은폐하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케네디 집단의 《새로운 전략》에 기초한 모험적인 군사 정책은 오늘 아세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봉쇄》하기 위한 《일본, 대만, 동남 아세아를 걸쳐 인도, 파키스탄에 이르는 광범위한》 《초생'달 형》 《좌측 공격 기지》의 축성을 위한 덜레스가 완성하지 못한 계획을 완성하려는 책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남부 월남, 남조선, 대만 등에서 덜레스의 《전쟁 접경》의 선을 넘어 《특수 전쟁》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거나 혹은 새로운 전쟁의 불'길을 일으키려는 광란적인 책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세아의 광범한 《반공 군사 체계》에 있어서 일본 군국주의와 남조선 괴뢰 도당을 결탁시켜 이를 골간으로 하는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고 그것을 《세아트》와 련결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을 《포위》하는 세계적 군사 쁠럭 체계를 완성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선 《한일 회담》을 하루 속히 결속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들은 《한일 회담》을 결속함으로써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총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남조선에서의 저들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수습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저애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기 위하여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세아의 비공산주의 제국을 집결시킴에 있어서 일본이 지도적 지위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광범한 해외 팽창을 사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일본도 반공 국가이므로 아세아에서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떠벌리면서 미제의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복무하는 대'가로 《아세아의 지도자》로 등장하며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날뛰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아세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족 해방 투쟁을 반대하기 위한 미 일 반동 지배층의 공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 있는바 그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핵 무장을 촉진하며 일본을 미국의 핵 군사 체계에 더욱 튼튼히 얽어 매 놓으며 일본 자위대의 남조선, 남부 월남 등에로의 해외 파병을 촉구하고 있다.

미제가 아세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여 축성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침략적인 공격 체계는 주로 3 개의 방향에서 침공의 길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첫째 방향은 남조선으로부터, 둘째 방향은 대만으로부터, 세째 방향은 인도지나 반도로부터이다.

미제는 지금 중 인 국경 분쟁을 확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침공의 길을 닦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케네디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인도와 공산 중국 간의 경쟁에 있어서》 대규모적 《원조》로 인도를 안받침하여 《공산 중국을 압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는 1949년부터 1959년까지의 10년간에 미국으로부터 약 27억 딸라의 《원조》를 받았다면 그가 반 중국 깜빠니야를 강화한 1959년 하반년부터 작년 7월까지의 불과 3 년간에 38억 딸라 이상의 원조를 받았다.

지금 미제는 인도에 군사 《원조》를 대량적으로 투입하며 중 인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백방으로 방해하면서 그를 중국을 반대하는 전쟁에로 내몰려고 광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화로 인도를 완전히 자기에게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케네디 집단은 아세아의 광범한 군사적 침략 체계를 완성하는 것과 함께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등에서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수습하며 아세아에서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소위 《국부 전쟁》 및 《특수 전쟁》을 발악적으로 준비하며 이를 감행하고 있다.

케네디 집단이 아세아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이란 덜레스의 대량 보복 전쟁의 공갈 정책만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족 해방 투쟁을 위협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각개 《분쇄》하고 《어느 곳에서 일어 나는 민족 해방 투쟁이든지 효과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탄압할 목적으로 꾸며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고 그의 지지 하에 아세아 인민들이 단결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부 전쟁》이나 《특수 전쟁》을 벌려 놓는다 하여도 그것이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 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구원하는 방도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제는 《극동에 대한 미국의 주되는 군사적 노력은 아직도 한국에 경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산악전에 숙달한》 새로운 전투단을 남조선에 증파하고 《게리라 작전 연습》을 포함한 군사 연습을 강화하는 등 미군과 괴뢰군을 새로운 전쟁 도발에로 내몰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앙양되는 반미 구국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

미제는 또한 남부 월남을 《특수 전쟁의 시험장》으로 전변시키고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화학 무기를 포함한 각종 현대 무기를 투입하여 저들이 직접 나서서 가장 야수적 방법으로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이 류혈전에 일본, 남조선, 대만 등의 괴뢰 군대를 끌어 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공모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아세아인 끼리 싸우게 하라》는 범죄적 계획의 실현을 서두르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라오스, 대만 등 아세아 도처에서 전쟁 도발 소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위 《특수 전쟁》을 중화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에까지 확대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또한 미제는 빈번한 군사 연습 소동을 일으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바 작년 상반년 기간에만도 미제는 14 회에 걸쳐 미군 제 7 함대와 《세아토》 참가국들의 무력이 참가하는 대규모적 군사 연습을 동남 아세아 지역에서 감행하였으며 최근에도 계속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이와 같이 아세아에서 무모한 군사적 침략 정책을 감행하는 한편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이 앙양되고 있는 조건에서 아세아 인민의 《인심》을 사며 중립주의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며 그리고 아세아 인민들 간에 분렬과 반목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교한 기만과 분렬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케네디 집단은 아세아의 중립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겉으로는 《중립을 존중한다》느니 《친선과 협조》를 희망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중립》의 《존중》이란 아세아 중립주의 국가들이 미제의 군사 뿔럭 정책과 간섭을 반대하여 더욱더 독자적으로 나가고 있으며 또한 미제의 지배 하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중립을 지향하는 기세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중립주의는 비도덕적이다》라는 덜레스의 구호를 단순히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세아 중립주의 국가들의 《환심》을 사며 아세아 인민들로부터의 고립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 사실은 미제야말로 중립주의를 반대하고 중립 국가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는 원흉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타이, 남부 월남 괴뢰들을 사촉하여 중립적 캄보쟈 정부를 반대하는 국경 도발 사건을 부단히 조작하고 중립을 담보할 데 대한 캄보쟈 정부의 제의를 거부한 사실, 장 개석 패잔병들을 동원하여 비르마 정부를 반대케 한 사실,

라오스에서 중립을 파괴하고 자기의 괴뢰 정부를 수립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사실, 네팔, 쎄일론, 인도네시아 등에서 미국 정보국의 지시 하에 반정부 음모를 조작한 사실 등은 케네디 집단이 독자적 길을 걷고 있는 중립 정부들을 자기의 괴뢰 정부로 교체하기 위하여 얼마나 음흉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케네디 집단은 아세아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계획을 촉진하도록 원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아세아 인민들의 《원조자》로 가장하려는 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원조》가 타국에 대한 략탈과 예속의 도구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은 미제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등의 현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는 미국의 《원조》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미국이 쎄일론과 같은 약소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원조 형태는 이 나라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삼가하는 것이다》라고 정당하게 언명하였다.

또한 케네디 집단은 아세아 인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을 훼손하고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통일 전선을 파괴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 계획을 용이하게 달성할 목적으로 소위 《중공의 호전적 팽창주의》에 대하여,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하여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반공, 반중국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 인민 중국의 위신을 훼손하며, 아세아 중립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중립주의를 포기케 하고 점차 미제의 세력 범위에 끌어 넣으며 다른 편으로는 아세아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깊이 침투할 것을 노리고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미제가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세아 침략에 더욱더 악랄하게 달라붙고 있으며 미제야말로 아세아 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케네디 집단의 소위 아세아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그의 선행자들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아세아에서 위기에 빠진 미제의 처지를 수습할 수 없다.

* *

아세아를 지배함으로써 세계 제패를 실현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이며 야심적인 침략 정책은 오늘 아세아에서 철저히 파탄되고 있다.

미제가 그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수습하기 위해 막대한 딸라와 정력을 집중한 남조선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일대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다. 서방 출판물까지도 오늘 《남조선의 파국적 상태는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현 정부를 거꾸러뜨리는 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대한 외국 군대의 점령 제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으며…이제 불만은 공공연한 봉기가 일어 날듯싶은 지점에 도달했다》(영국 《이스턴 월드》지)고 인정하고 있다.

남부 월남에서도 미제는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빠졌으며 라오스를 삼키려던 미제의 야망은 분쇄되였으며 중인 국경 분쟁을 확대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던 미제의 음모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주동적 조치에 의하여 좌절되고 있다.

아세아에서의 미제 침략 체계의 핵심인 《세아토》는 사실상 사분오렬되여 있으며 《세아토》와 《센토》의 《련결봉》인 파키스탄은 《이러한 군사 쁠럭의 존재 가치를 의문시하고》 공공연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10 여 년간에 걸쳐 《한일 회담》을 결속지어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던 책동은 조 일 량국 인민과 세계 사회 여론의 강력한 항의에 봉착하여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아세아 중립주의 국가들을 기만 회유하고 아세아 국가들 간의 분렬을 조성하려던 미제의 계획도 파탄되고 있다. 아세아 중립주의 국가들은 반제, 반식민주의의 기치를 들고 미제의 간섭과 침략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진출하고 있으며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그들과의 친선 관계는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아세아의 도처에서 고립되고 있으며 그의 침략 체계는 결속되기는 커녕 지리멸렬 상태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침략 정책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결코 앉아서 감수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침략자의 본성 그대로 아세아에서의 저들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더욱 음흉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현실은 아세아 인민들에게 미제의 침략에 대한 최대의 경각성을 높이며 반제, 반식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반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5 차 전원 회의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치되여 있으며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으로 인하여 오늘 정세가 더욱더 긴장되여 있는 조건 하에서 적들의 책동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견지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나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준비되여 있을 것을 강조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단결되고 각성된 아세아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아세아에서 종국적으로 쫓겨 나고야 말 것이며 아세아를 지배함으로써 세계 제패 계획을 실현하려는 그들의 망상은 분쇄되고야 말 것이다.

일'군들의 이신작칙

윤 승 관

이신작칙은 우리 당 군중 로선 관철의 중요한 방도이다

군중 로선의 관철은 혁명을 령도하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군중 로선의 관철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출발점으로 되는 군중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세우는 동시에 옳바른 군중 공작 방법을 가지는 문제이다.

우리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이러한 군중 공작 방법을 가짐에 있어서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이신작칙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지 행동의 수범으로써 군중을 감화시키며, 교양하며, 이끌어 나가는 작풍이기 때문이다.

이신작칙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실천 행동을 통하여 군중의 선봉이 되고 군중의 모범이 되여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인도해 나가며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인민적 사업 작풍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 일'군은 항상 군중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은 인민 대중의 생동한 창조적 생활 속에 깊이 들어 감으로써만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며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기본 요구입니다.》(선집, 제 6 권, 268 폐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디에 가든지 군중 속에 들어 가 이신작칙함으로써 당의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신작칙은 일'군들이 대중을 믿고 대중 속에 들어 가며 대중에게 의거하는 형식이다.

우리가 대중을 믿고 그들 속에 들어 가며 그들에게 의거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어울려 돌아 간다거나 그들에게 일'거리를 맡겨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군들이 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면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서 당의 정책과 의도를 해설 선전하며, 군중과 의논하여 대담하게 실행 대책을 세우며, 시범을 보여 주면서 군중을 그의 관철에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군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방책을 세우며 그들에 의거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여기에 바로 군중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 우리는 실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즉 군중의 대렬 속에, 그 대렬의 앞장에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그래야 우리는

군중과 함께 살며 함께 숨쉬면서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신작칙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인민 대중의 충복으로서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기본 표징으로 된다.

우리는 결코 실천과 떨어져서 인민 대중에 대한 충성을 말할 수 없다. 말에 앞서 실지 행동으로서, 군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투쟁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또한 어려운 고비일수록 군중의 진두에 서서 그것을 타개해 나가며 자기의 희생적 노력으로서 군중의 리해를 보살피고 고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떠한 시기,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나 우선 군중의 전반적 리익을 념두에 두며, 군중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며,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리익을 그에 복종시켜야 한다. 군중의 리익이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개인적 리익을 초월하며 우리 행동의 최고 원칙으로 된다는 것은 원래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립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중이 자유로와지고 대중이 행복해지고 대중이 기뻐하는 것—여기에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투쟁의 참된 보람이 있고 군중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충성의 담보가 있는 것이다.

이신작칙은 또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자기의 행동과 사업에 대하여 군중 앞에 책임지는 기본 립장으로 된다.

당의 정책과 로선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군들과 당원들의 사업은 그저 아래'사람들에게 해설이나 해 주고 하라고만 하는 것으로써는 부족하다. 우선 일'군들 자신이 솔선 그의 관철에 뛰여 들어 가며 인민 대중을 발동하여 그를 끝까지 수행함으로써만 임무를 참답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일'군들과 당원들은 매사에 인민 대중 앞에 지닌 자기의 중책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인민 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그에 충실해야 하며 그와 배치되는 일체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행동, 인민 대중의 리익을 침범하거나 그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작풍이야 말로 바로 일'군으로서, 당원으로서, 당과 군중 앞에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태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일'군들이 이신작칙을 통하여 대중에게 의거하고 복무하며 대중 앞에 책임지는 것은 대중을 감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일'군들을 자기들의 진정한 지도자로, 벗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며 이러한 일'군들과라면 어디까지든지 운명을 같이 할 각오를 굳건히 다지게 한다. 이것은 나아가서 대중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군, 이러한 당원들을 가진 당을 더 신뢰하게 하며 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뭉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것은 다른 편으로는 군중들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낡은 사상 잔재들을 버리고 점점 더 당의 사상으로, 당과 더불어 싸워 나가려는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되면서 자신들을 더 성과적으로 개조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또한 그것이 대중에게 당의 정책과 의도를 잘 알게 하며 대중이 그것을 자기의 요구로 접수하고 자각적으로

관철케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 데 있다.

우리 일'군들은 대중 속에 들어 가서 이신작칙을 통하여 대중에게 당의 정책과 의도를 해설 선전하며 실천적 모범으로써 그의 수행 방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정책을 더 명백하게, 더 확신성 있게, 실천 방도까지도 잘 알게 한다. 이것은 또한 대중으로 하여금 일'군들과 당원들의 그 헌신적인 복무적 태도와 교양적 태도에서 당의 정책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들을 위한 것이며 자기들의 심정과 요구를 반영한 자기들의 정책이라는 것을 더 깊이 자각하게 한다. 따라서 이것은 군중으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내게 하는 힘찬 추동력으로 된다. 대중의 이와 같은 가일층의 분발은 생산과 건설의 성과를 높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우리 혁명의 전진을 빠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대중 속에 들어 가 이신작칙함으로써 그들을 더욱더 성과적으로 교양하여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혁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사업해야 한다.

이신작칙은 일'군들의 중요한 수양 방도이다

이신작칙은 대중을 당의 정책으로 무장시키며 당의 주위에 더 잘 묶어 세우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신작칙의 중요한 의의의 하나는 바로 그것이 일'군들의 중요한 수양 방도로 된다는 데 있다.

일'군들은 이신작칙을 통하여 대중과 더불어 생활하며 호흡하게 되는 것 만큼 이것은 대중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계기로 된다.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한 우리의 군중은 혁명성이 강하고 조직력이 강한 것으로서 특징적이다. 그들은 자연을 개조하며 모든 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해결에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보수주의, 소극성과의 투쟁에서 대담하다. 또한 그들은 집단적인 로동 속에서 행동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조직성이 강하고 집단주의 정신이 강하며 규률성이 강하다.

일'군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성과 조직성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혁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질들인 것이다.

일'군들은 이신작칙하는 과정에서 또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배울 수 있다.

《제일 총명한 자는 생산자이다. 기계를 깎는 사람들이다.》라고 김 일성 동지는 말씀하였다. (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참조)

이것도 군중들 자신이 자연의 개조자이며 생산자라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생산 과정은 매 공정마다가 창조적 사업이다. 따라서 생산 과정은 이들을 지혜롭고 총명하며 창조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일'군들은 바로 이들 속에서 이러한 총명과 지혜를 습득함으로써 자신들을 더욱 유능한 일'군으로 만들 수 있다.

일'군들은 이신작칙을 통하여 대중의 무한한 힘을 더욱 확신하게 되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려는 사상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힘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로동자, 농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비행기도, 자동차도, 기차도, 기선도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로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실생활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공장, 기업소도 로동자들이 건설하였으며 생산에서의 혁신도 로동자들이 일으켰으며 벼 랭상모도 농민들이 연구해 낸 것입니다.》(선집, 제 6 권, 112~113 폐지)

이러한 군중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힘을 더 확신하며 그들에게 더욱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혁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굳건히 하는 것은 일'군들 속에서 군중 관점을 옳게 세움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군중 관점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력사 창조자로서의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군중 관점의 핵을 이루는 것 만큼 동시에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도 첫째 가는 의의를 가지며 그의 기초로 되는 것이다.

이신작칙은 일'군들로 하여금 다만 군중의 모범을 봄으로써만 혁명성과 지혜를 가지게 하고 군중 관점을 세우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이신작칙은 일'군들 자신이 군중이 되고 생산자가 되며 전투적 환경 속에서 살게 하는 것 만큼 그 자체로서 벌써 일'군들을 직접 혁명성과 지혜를 가지게 하며 군중 관점을 가지게 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신작칙은 모든 일'군들이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가져야 할 사업 작풍이다.

만일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시범을 보여 주기 싫어하고 활동하기 싫어하고 군중 속에 들어 가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필경 그들을 주관주의자로, 관료주의자로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면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것은 군중에게 해롭고 당에 해롭고 동시에 일'군들 자신을 위해서도 해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군들은 자신을 관료주의적 작풍과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신작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사업 작풍을 가지기 위한 투쟁에서 군중을 교양할 뿐만 아니라 군중에게서 적극 배우고 단련함으로써 자신들을 더욱더 당과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공산주의적 혁명 활동가로 키워야 한다.

이신작칙은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이신작칙은 일'군들이 소유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리론, 당의 사상과 리론을 실제 사업과 결합하며 실천 과정에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맑스-레닌주의 리론이나 당 정책을 학습하는 것은 다만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혁명 실천의 무기를 얻자는 것이다. 얻은 무기는 실생활에 적용됨으로써만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신작칙은 일'군들이 실천에 접근하는 중요한 방

도인 만큼 이것은 그들의 지식과 리론을 실천과 결합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일'군들은 군중과 더불어 당 정책을 관철해 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때 안 되는 일이 없으며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깨닫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군중이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 물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당의 정책이 현실의 요구, 대중의 요구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군들은 당의 정책의 정확성, 정당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며, 당 정책의 출발점과 그 내용, 본질을 보다 정확히 리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리론은 실천 과정에서 일'군들에게 더욱더 산 지식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공고화된다.

일'군들은 이신작칙 과정에서 새로운 리론적 기초들을 많이 쌓게 된다.

우선 군중 속에서 의견과 경험들을 듣게 되는바 이것은 리론의 중요한 원천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도 훌륭한 리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나 경험들은 군중들 자신이 오랜 실천 과정에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그 실천 과정을 개괄하여 얻어 낸 열매들인 것이다. 물론 그것이 체계적이 못 되고 조잡할 수 있으나 그것을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종합하고 분석한다면 훌륭한 과학적 결론들에 다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론들은 다시 당 정책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침들을 채택하고 구현함에 있어서 믿음직한 기초로 된다.

일'군들은 또한 이신작칙 과정에서 해결을 요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곤난한 조건들과도 부닥치게 된다. 그러나 이것들도 역시 일'군들의 리론적 수양에서는 다 귀중한 것이다. 즉 일'군들 자신이 당장 해결할 수 없다든가, 해결에서 곤난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부족되는 측면들을 말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더 연구해야 하겠는가 하는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데 기초하여 일'군들은 자기의 당 정책 연구와 실무 수준 제고에서의 부족점들을 퇴치하고 리론적 준비를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신작칙은 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정책적 요구, 우리 현실의 요구를 보다 명백히 알고 그 방향으로 자신들의 연구와 사고를 더 깊이 돌리게 한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대담성과 창발성을 갖게 하며 수정주의, 교조주의와의 투쟁에서 자신들을 더 위력한 사상 리론적 무기로서 준비되게 한다.

우리 일'군들은 이신작칙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욱 심오히 체득함으로써 심화되는 사회주의 건설의 단계에 적응하게 자신들을 더욱 준비시켜야 한다.

* *

이신작칙은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빨찌산 투쟁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에도 당의 창건 첫날부터 이 작풍에 기초하여 군중을 우리 당의 편으로 이끌었고 교양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로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이 사업 작풍은 전 당적인 사업 작풍으로 되였으며 나날이 그 생활력을 더 크게 시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현 단계는 일'군들이 군중적 사업 방법과 작풍을 더욱 철저히 체득하고 각계 각층 군중을 우리 당의 주위에 철저히 묶어 세우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에 적응하게 우리 일'군들이 이 사업 작풍을 더 잘 체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신작칙의 사업 작풍을 체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 사업 방법과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이신작칙의 작풍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모범에서 배움으로써만 우리는 실지 어떻게 이신작칙해야 하며 거기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작풍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 등을 잘 알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당 정책 학습을 더 잘 해야 한다. 군중의 앞장에 서려 해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디에서나 우리 행동의 실천적 지침인 당 정책을 모르고서는 군중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의 자로 되는 당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또한 이신작칙의 사업 작풍을 구현함에 있어서 기술 지식을 얻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지금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다. 어디에 가나 마주치는 것은 기술 문제이며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기술을 모르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어느 령역에서도 앞장에서 일할 수 없다. 기술을 알고 대중과 더불어 기술적 문제들을 의논하고 기술로서 걸린 고리들을 풀어 줄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내는 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중요한 전투적 과업이다.

우리는 또한 인간성과 문화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결코 군중에게 랭랭하고 비문화적으로 대해 가지고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잘 따라 오게 할 수 없다. 대중이 뒤따르지 않는 《이신작칙》이란 결국 《독불장군》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대중을 인정 있고 문화적으로 대해 줌으로써 그들이 당의 정책을 믿고 우리를 따라 오는 동시에 우리 일'군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도 결코 딴 길로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각계 각층 군중을 우리 당과 혁명의 편에 더욱더 철저히 전취하는 것은 혁명의 승리를 그만큼 더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문답 학습

생산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 당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문화를 높일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지방 공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을 천명하시면서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생산 문화를 높일 것을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창성, 삭주군 내 식료 가공 공장들을 비롯한 모범적인 지방 산업 공장들의 경험은 생산 문화를 높이는 것이 생산과 기업 관리 전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생산 문화를 높이는 문제는 지방 공업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 공업에서도, 그리고 식료 가공 공업 뿐만 아니라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도 제기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리의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면 생산 문화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생산 문화란 생산 행정의 모든 부문에 걸치는 과학적이며 문화적인 정연한 질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 문화에는 작업장의 합리적인 조직, 기계, 기대 등 생산 설비들에 대한 문화적인 관리, 공구의 애호, 로동 규률의 확립, 원료, 자재의 합리적인 보관, 리용,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제고, 질서 있는 환경의 보장 등이 포괄된다.

따라서 생산 문화를 높이는 것은 기업소 내외의 청소나 잘 하고 로동자들의 개체 위생이나 잘 지키게 하는 데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 문화를 높이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의 생산 문화와 직장 내의 청결 정도를 보아 그 기업소의 생산 형편과 일'군들의 문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집, 제 4 권, 134 페지)

생산 문화의 제고는 기계 설비의 추가적인 설치 없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물자와 로동 시간의 절약을 가져 오게 함으로써 생산 내부에 있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훌륭히 동원하며 제품의 질을 급속히 높일 수 있게 한다.

생산 문화를 높이는 것은 우선 생산의 량적 장성을 가져 오며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우리는 적지 않은 공장들에서 동일한 설비로써 동일한 원료를 가공하는 데도 생산량과 제품의 질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개 기업소들의 생산 행정에서의 질서, 생산 문화와 적지 않게 관련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문화를 높이여 로동자들로 하여금 기계,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개선하게 하며 선진적 표준 조작법을 엄수하게 하며, 제반 기술 규정들을 정확히 지키게 함으로써 생산량은 급속히 제고될 것이며 제품의 질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특히 표준 조작법의 도입과 그의 철저한 준수는 로동자들로 하여금 현대적 기계 기술이 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최대한 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의 토대 우에서 제품의 가공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며, 따라서 이것은 제품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평양 견방직 공장에서는 지난해 생산 문화를 높일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일련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생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제품의 질을 높이는 투쟁과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특히 이곳 일'군들은 직장 내의 환경 정리로부터 설비에 대한 관리 규정, 표준 조작법과 각종 기술 안전 규정, 로동자들의 개체 위생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였다.

동시에 이 사업을 사회주의 경쟁(모범 직장, 모범 기대, 모범 호실 창조 운동)과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제 1 직포 직장만 보더라도 직물 1 등품의 생산량을 3.5 배로, 수출품 생산 계획은 135%로 각각 초과 완수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 문화를 높이는 것은 기업소의 생산 계획을 량적으로 완수할 뿐만 아니라 오작품을 퇴치하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케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생산 문화의 제고는 기계,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원료의 절약을 가져 온다.

기계, 설비들을 잘 다루고 합리적으로 리용할 뿐만 아니라 원료를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도 모든 사업에서 엄격한 질서와 제도가 확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로동자들로 하여금 기계, 설비들에 수시로 기름을 치고, 자주 손질하며 마모된 부분이 없는가를 검열하여 자체 수리를 진행하는 등 기계를 문화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은 기계들의 상태를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보존하게 하며 생산에 오랜 기간 복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계획에 예견된 대, 중, 소 보수 없이도 정상 가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기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생산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원료, 자재의 보관 관리를 잘 하여 생산에 요구되는 규격의 원자재를 제때에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생산에서 오작품과 불합격품 생산을 근절하게 함으로써 물자를 극력 절약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생산 문화를 높이는 것은 대중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장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직장을 질서 정연하게 정돈할 뿐만 아니라 생산 행정의 모든 고리들에서 과학적이며 조직적인 정연한 질서를 확립한다면 그것은 로동자들의 문화 의식 수준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될 것이다.

문화적인 환경에서 질서 있고, 정연한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만 되는 대로 생활하고 되는 대로 일하던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 습성들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문화의 제고는 근로자들 속에서 새로운 공산주의적 관점과 생활 기풍을 배양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오늘 생산 문화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 일'군 자신들이 생산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는 문제이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청소 조직이나 하는 데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결코 큰 자금이나 많은 로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생산 문화를 높임으로써만 생산 뿐만 아니라 기업소의 다른 일련의 문제들도 동시에 풀리게 된다는 것을 잘 인식

하고 이 사업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리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도 일'군들이 발동되여 근로자들 속에서 발로되는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 습성들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생산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 확립된 생산 관리 체계에 맞게 사업 질서와 제도를 강화하며 생산 지도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공장들이 현대적 기계 기술로 장비된 조건에서 선진 과학 기술의 성과와 로동자들 속에서 일어 나는 각종 혁신안들을 생산에 부단히 도입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를 더욱 장성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제도와 질서를 새것으로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

생산 관리의 모든 고리에서 문화성을 높임으로써만 생산에 대한 기술 경제적이며 과학적이며 분석적인 지도를 적시에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 일'군들 자신이 직접 각종 표준 조작법과 선진적인 기술 공정들을 작성하고 그의 정확한 실행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보장해 주며, 그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검열하여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 주는 등 생산 지도에서의 대안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정확히 움직이며 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이 사업에 광범한 근로자들을 망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로동자들이 높은 기술 문화 지식을 소유함이 없이는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기계, 설비가 차례져도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없으며 더우기 발명, 창의 고안, 합리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대적 기계, 기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짜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규정이 요구하는 정확한 작업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작업장의 정연한 질서와 설비들에 대한 문화적인 관리, 그리고 설비와 원자재의 합리적인 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력량을 돌림으로써 기업소의 생산 문화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현 재 학

정정: 《근로자》 제 5 호 19 페지 우단 6 행
《인도네시아》를 《인도지나》로 고침.

근 로 자 제 7 호 (루계 22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4월 5일 인 쇄 • 1963 년 4 월 3 일

ㄱ—330219 값 40 전

서 적 안 내

맑스 엥겔스 전집 4 권

판형 국판, 예정 페지 70 페지

맑스 엥겔스 전집 4 권에는 맑스와 엥겔스가 1846년 5월부터 1848년 3월까지의 기간에 집필한 저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시기는 맑스주의 형성이 완성되던 때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바로 이 시기에 집필한 저작들에서 과학적 공산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는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을 천명하였으며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본 권에 수록된 저서들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전 세계사적 사명에 관한 명제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명제를 더욱 명확히 밝히였다.

특히 본 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저작은 《공산당 선언》이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첫 강령적 문헌인 이 저서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멸망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의 불가피성을 론증하였으며 국가의 본질,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목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선진 부대로서의 당,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본 원칙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본 권에는 맑스주의의 중요한 리론 저작 중의 하나인 《철학의 빈곤》을 비롯하여 맑스주의 문학 평론의 기초로 되는 《시와 산문에서의 독일 사회주의》 등 중요 저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